

大巡思想의 信條 : 敬天 · 修道

朴昇植*

目次

I. 序論	III. 信仰과 修道
II. 敬天의 意義	1. 信仰의 本質
1. 中國의 天의 概念	2. 修道의 意義
2. 韓國의 天의 概念	3. 修道의 目的과 修道生活
3. 敬天의 意義	IV. 結論

I. 序論

본 논문은 대순사상의 신조(信條) 중 敬天 · 修道를 연구한 것이다. 대순사상에서 신조는 4綱領이라 하여 安心 · 安身 · 敬天 · 修道인데, 안심과 안신은 인간의 마음과 몸에 관한 것이고, 경천과 수도는 대순사상의 근원과 신앙 방법을 뜻한다. 신조인 安心 · 安身 · 敬天 · 修道는 陰陽合德으로 볼 수 있다. 安心 · 安身은 양이고 敬天 · 修道는 음으로 安心 · 安身과 敬天 · 修道가 조화를 이루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안심 · 안신은 대순사상논총 제7집에서 연구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경천 · 수도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하늘을 신앙의 근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순사상의 첫번째 종지인 음양합덕은 우주를 구성하는 하늘과 땅의 조화가 우주 만물의 창생과 변화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순사상이 성립하게 된다. 그리하여 하늘은 신앙의 始原이 되는 것으로 보아 敬天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 행정학 박사

하늘을 신앙의 근원으로 인식하는 것은 원시시대에서부터 있었으며, 현대인들에게도 잔존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하늘도 무심하지’, ‘하느님이 보우하여’ 등은 하늘이 인간세계를 지배하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말속에는 원초적이고 보편적인 종교경험인 天神信仰이 나타나 있다.¹⁾

서양에서도 하늘은 자연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종교적 의미를 갖고 있다. 영어에서도 천체는 heaven, 형태를 말할 때에는 sky, 섭리를 말할 때에는 providence라 한다. 이와 같이 하늘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수도는 도를 닦는다는 의미로 대순진리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생활에서 겪는 고통과 재난 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대순진리회에서는 수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기서는 敬天과 修道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敬天의 意義

경천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의미를 먼저 이해해야 하겠다. 경천은 하늘을 공경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늘에 내재한 의미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 의의를 이해할 수 없다. 하늘이란 일반적으로 땅의 대칭으로 지상의 공간을 말한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늘은 지평선으로 한정된 무한한 공간이며, 그 공간에는 공기와 대기 속의 먼지가 있으며, 그리고 달과 별이 떠 있는 공간이다.

하늘은 바람을 일으키고 구름을 몰아 비와 눈을 내리게 하여 천지만물을 주재하는 신성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종교적으로 보면 하늘은 천상에 신, 또는 天人, 天使 등이 살고 있는 청정무구(淸淨無垢)한 상상의 세계이다. 그리고 사람이 죽은 뒤에 영혼이 올라가서 머무르는 천국이며 낙

1) 한국종교연구회, 한국종교문화사 강의(서울 : 청년사, 1998), pp. 74-75.

원의 세계이다. 그리하여 인간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숭배하는 숭천사상(崇天思想)이 오래 전부터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天은 고대서부터 신성(神聖)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하늘이 신성의 대상이 되면, 거리감각으로 사람과 혼합될 수 없으며, 사람과 통할 수 없는 천기(天機)를 가진 존재가 된다. 이러한 하늘은 인간과 만물의 생명을 주관하는 존재이다. 여러 신화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늘은 농사, 생명, 형벌, 선악 등을 모두 주관하여 인간들이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신앙의 대상이 되어 왔다.²⁾

자연적 의미의 하늘에서 신비한 존재로 인식되어, 하늘은 종교적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늘은 역사적으로 신비한 숭배의 대상이었고, 인간을 지배하는 존엄한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예로부터 인간들이 생각하는 하늘은 자연환경과 역사 및 생활양식에 따라 각기 다르게 형성되고, 시대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 왔다. 모든 관념은 자연환경과 역사, 생활양식에 의해 형성되고 있는데, 형성된 관념이라 하더라도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어서 시대에 따라 형태와 의미가 달라지면서 다양해진다. 하늘의 관념도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형성되었고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대순사상에서도 하늘은 신앙의 근원, 또는 근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늘의 의미와, 대순사상에서의 경천의 의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中國의 天의 概念

天이라는 글자는 一과 大, 그리고 二와 人을 합한 글자로서, 유일한 至大의 의미와, 二人의 관계로 볼 수 있다. 전자의 天은 신비로운 자연적 天이면서도 주재적인 天이라 할 수 있고, 후자는 두 사람 이상이 생활하는 인간사회의 정신적 주재로서의 천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字意에서 天은 여러 가지로 불리어졌으며, 多義的으로 사용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하늘을 형체를 말할 때에는 天이라 하고, 주재상(主宰上)에서 말할 때에는 상제(上帝)라 하고, 공용상(功用上)으로는 귀신이라 하고, 묘용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23(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pp. 710-714.

상(妙用上)에서는 神이라 하고, 성정상(性情上)에서 말할 때에는 건(乾)이라 하는 등 다양하게 부르고 있다.³⁾ 형체로서 천은 물리적 천으로 무한한 공간적 세계와 시간적 세계를 포함한 전 우주를 말한다. 하늘은 일월성신(日月星辰)이 존재하고, 만물을 덮고 있는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대상이다.

주재자로서 천은 종교적 천이다. 우주를 지배하고 관리하는 최고의 지배적 주재자로서 지고지신(至高至神)의 존재로서 天帝, 또는 天皇으로 표현하고 있다. 신으로서 천은 허령(虛靈)의 묘용(妙用)으로서 정신의 근원이며, 생명의 근거로서 만물 위에 존재하며 만물을 생하는 존재로서 천이다.

그리고 性情으로서의 천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운행하는 데 따라 나타나는 자연현상을 뜻한다. 지구의 공전과 자전에 의해 나타나는 春夏秋冬과 晝夜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원형이정(元亨利貞)의 개념이 형성되었다. 유교에서는 元(시작), 亨(성장), 利(완숙), 貞(결실의 마침)의 과정에 의해 천지는 운행한다고 한다. 우주 자연은 시작과 끝이 없이 항구적으로 순환한다는 것이다. 생명의 시작은 끝이 있고, 끝에 이르면 새롭게 시작되어 처음으로 이어지면서 계속적인 순환을 한다고 한다. 사물은 극(極)에 달하면 되돌아오는데(物極必反),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 한다. 원형이정(元亨利貞)의 순환을 사계절과 비유하여 元은 우주의 힘이 형성되는 봄이고, 亨은 우주의 힘이 번성하는 여름이며, 利는 우주의 힘이 쇠퇴하면서 만물이 조화를 이루는 가을이고, 貞은 만물이 시발점으로 돌아와서 안정되는 겨울이라 한다. 한편 신유가(新儒家)에서는 元亨利貞과 仁義禮智를 각각 대조하여 元은 仁, 亨은 義, 利는 禮, 貞은 智와 연관지어 설명하기도 한다. 인간의 가치를 우주에 내재하는 이치로 이해하여 사상을 전개하고 있다. 인간은 우주적 가치를 갖고 있는 존재로서, 우주의 순환원리는 인간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천관(天觀)은 고대에서부터 점차적으로 형성되어 왔다. 詩經, 書經, 그리고 중국의 夏, 殷, 周 시대의 천관을 보면 다음과 같이 10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3) 柳正基, 東洋思想辭典(大田 : 右文堂出版社, 1965), p. 79.

- ① 인간의 생명은 하늘이 부여한 것으로 수요(壽夭), 장단(長短)은 천이 결정한다.
 - ② 천이 인류를 위하여 하나의 도덕법칙을 세워주었는데, 그것을 이(彝), 칙(則), 명덕(明德)이라 한다.
 - ③ 도덕법칙은 천이 명령한 것으로 사람이 따라야 하는 것으로 명(命), 또는 칙(勅)이라 한다.
 - ④ 천은 항상 사람을 감찰하며 천이 명령한 것의 실행여부를 파악한다.
 - ⑤ 사람이 천의 명령을 잘 따르면 재해도 없고 복을 주지만, 명령을 어기면 천이 노하여 벌을 준다.
 - ⑥ 천이 명령하고 상벌을 주는 권한은 왕이 대행하게 하는데, 왕은 천을 대표하므로 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항상 백성들을 거느리고 천명에 순종한다.
 - ⑦ 천이 왕을 세울 때 먼저 그 사람을 구하여 얻으면 그에게 영보(靈寶)를 주어 수명(受命)의 부(符)로 삼도록 하고, 전왕(前王)도 후왕(後王)을 천에 천거하여 가합(可合)하면 천이 받아들인다.
 - ⑧ 왕자가 도를 잃으면 천이 먼저 꾸짖어 경구(敬懼)하게 하고 고치지 않으면 벌을 주는데, 그 벌은 새 왕이 집행하게 한다.
 - ⑨ 천의 뜻은 민중에게 달려 있으니 백성들이 요구하면 천이 반드시 따른다.
 - ⑩ 사람이 죽으면 천으로 돌아가는데 현철한 사람은 천제의 좌우에 있다.
- 이와 같이 중국 고대의 천관은 초월적 주재자로서 종교적 인격신, 천이 인간에게 부여한 도덕법칙으로 형이상학적인 의리천, 신비적 운명천, 정치적 天命思想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

공자도 이러한 천관을 갖고 있다. 공자는 인간이 자아를 발견하고 내재한 道德律을 통하여, 하늘을 느끼고 이해하였다. 공자 이전의 천 개념은 공포와 신비와 경이의 천으로 하늘에 대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었지만, 공자는 인간의 仁과 유리된 천은 존재할 수 없다고 인식하였다. 공자는 논어에서 외천(畏天)하면서 도덕률로서 인간에게 부여된 천명을 인격도야를 통해서 알 수 있다(五十而知天命)고 하면서도, 제자의 죽음 앞에서 운명적인 천명을 탄

식하고 있다.

공자는 인간의 德性에 대해서는 도덕적 天命思想을 유지하면서, 신비주의적 天人未分の 신성성(神聖性)을 바탕으로 사회질서 유지를 시도하였다. 즉 공자는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재래의 초월적인 천에 대한 신성관념을 인간 속에 내재시켜 그것을 사회적으로 보편화하고 있다.”⁴⁾ 이것이 仁의 사상이다. 공자는 이전의 모든 덕목들을 仁에 포함시켜 사상을 전개하였다. 仁은 人과 二의 합성어로서 두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원리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天이 二와 人의 합성어로 볼 수 있으므로 仁과 天은 同義로 해석할 수 있다. 天과 仁은 두 사람 사이, 나아가서는 인간사회 일반에 적용되어야 할 기본 원리라 할 수 있다. 인간관계는 두 사람 사이에서 시작되고, 두 사람 사이의 원리는 전체 인간사회에 필요한 원리가 될 수 있다. 仁은 天에서 유래된 개념으로 同義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仁의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⁵⁾

仁은 첫째,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두 사람이 원만하게 지내려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공자는 인은 “남을 사랑하는 것(愛人)”이라 하였다.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이 없이는 실행하기 어려운 감정이다.

둘째, 인은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보편성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도덕성을 갖고 있지만, 기질적인 욕망도 갖고 있는 복합적인 존재이다. 인간생활은 현실적으로 기질적인 욕망이 크게 작용하여 인간 상호간에 갈등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갈등은 인간사회의 각종 문제를 야기하는 사회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개별적인 기질적 욕구를 억제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에 바탕을 둔 행동을 해야만 한다. 공자는 仁은 “자기를 억누르고 禮(보편적 원리)로 돌아가는 것(克己復禮)이라 하였다.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를 스스로 억제하여야 사회에서 기본적인 禮를 지키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克己復禮가 仁이라

4) 李完基, “孟子的 義思想에 대하여”, 道源柳承國博士華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東洋思想論巧 : 그 本質과 現代的 解釋(서울 : 종로서적출판주식회사, 1983), pp. 253-254.

5) 李完基, “儒學의 情神”, 道源柳承國博士華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東洋思想論巧 : 그 本質과 現代的 解釋(서울 : 종로서적출판주식회사, 1983), pp. 10-12.

는 것이다.

셋째, 仁은 나의 마음을 바탕으로 남을 이해하고, 남을 도와주는 태도이다. 공자의 제자인 子貢이 공자에게 일생 동안 지켜야 할 하나를 물었을 때 恕(恕)라고 했다. 恕는 仁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恕는 如와 心의 합성으로 같은 마음이 된다는 뜻의 글자이다. 다른 사람과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 恕라 할 수 있는데, 恕를 행하는 데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소극적으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대신 베풀어주는 것이다.

이러한 仁을 실천하는 것은 天道, 또는 天理, 天命이라고도 한다. 天道란 천상의 도로서, 시간적인 원리이며 정신적인 사상이다. 易經의 說掛傳에 “天道를 세워 음과 양(是以立天地道 曰陰與陽)”이라 하여, 하늘과 땅은 음양으로 영원히 계속되는 법이라 하였다. 그리고 繫辭에 “천지의 위대한 작용은 끝없는 낳음이다(天地之大德曰生)”라 한 것과 같이 무한한 생산을 하는 것이 자연의 본질이고 理法이라 한다.⁶⁾ 천지는 자연적 작용을 낳게 하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음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무한한 생산을 하는 본체로 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동양의 전통적 자연관은 자연은 단순한 물질의 집합체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유기체로 보고 있다.

하늘은 인간생활의 지침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맹자가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이라 한 君子三樂(君子三樂) 중 두번째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고 인간을 굽어보아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맹자는 天은 “行或使之 止或尼之 行止非人所能也 吾之不遇魯侯 天地或氏子焉 豫不遇哉”⁷⁾ 라고 하여, 개인적인 모든 행위들의 근본적인 동기로 보고 있다. 그리고 “然則舜有天下也 孰與之 曰天與之”라 하여, 天은 우주 또는 인류사회 전체를 주관하는 자로 보고 있으며, “若夫成功則天也”라 하여 인간의 모든 행위의 결과를 결정하는 최후의 심판자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天의 운행은 천이 직접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與天地同流’, 또는 “天命流行” 등으로 표현한 데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흐름(流)의 개념으

6) 上揭論文, p. 15.

7) 孟子, 梁惠王下.

로 보고 있다. 天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흐름에 순응하는 것으로서 吉과 福으로 인도되고, 天의 뜻에 거스르는 것은 凶과 禍를 불러들인다는 것이다.⁸⁾

天命은 인간사회와 자연현상이 天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천명은 인간을 포함한 만물은 天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으로서, 개인의 운명과 天하의 모든 질서가 天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易經 繫辭에 “樂天知命故不憂(하늘의 도를 깨우쳐 즐겨 하며 스스로 천명을 알고 있으므로 근심치 않는다)”고 하였다. 천명은 하늘이 인간의 운명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하늘의 뜻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인간이 자기의 본분을 알아 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천명을 따르는 것으로, 어떠한 근심도 없게 사는 방법이라 한다.

天命思想은 天은 만물의 창조 의지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창조 의지를 命이라 한다. 天이 갖고 있는 命은 조화로 이해한다. 만물은 天의 命을 받아서 생성되는데, 피조물들이 天의 命을 받아 가진 것이 性으로 이해된다. 만물의 본질은 性에서 찾을 수 있고, 인간도 人性에서 본질을 알 수 있다고 한다. 中庸 제1장에 “인간의 본성은 하늘이 명하는 것(天命之謂性)”이라 하였다. 天과 인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본질인 인성 개념이 유학의 人性論의 기본이 되고 있다.⁹⁾ 인성은 天에서 받은 명이기 때문에 자기의 동일성인 동시에, 인류의 동일성이 된다. 이를 맹자는 발전시켜 仁義禮智로 구체화시키고 있다.

하늘은 지고의 선으로 보고 있다. 성실은 하늘의 길이고, 성실하게 하려는 것은 사람의 길이다(誠者 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라 한다. 성실한 것은 천리(天理)로서 진실하고 허망(虛妄)함이 없는 것으로 天道라 한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聖人の 경지에 이르지 못하여 사욕(私慾)으로 德이 진실하지 못해서, 天道를 따르기 위해서는 많은 생각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즉 성실해 지려는 사람은(誠之者) “善한 것을 택하여 굳게 실천해 나가는 것(擇善固執之)이라 하였다. 사람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바로 아는 것은 善한 것을 택

8) 李基東, “孟子的 義思想에 대하여”, 道源柳承國博士華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東洋思想論巧 : 그 本質과 現代的 解釋(서울 : 종로서적출판주식회사, 1983), pp. 257-258.

9) 上揭論文, p. 258.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고 배제하여 정진하는 것이 誠之者의 태도라는 것이다. 聖人이 되지 못한 보통 사람은 반드시 선을 택한 후에 성실해 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誠은 天道로서 聖人의 도이기 때문에, 천도와 성인의 도는 동일한 개념으로서, 인간이 지향해야할 최고의 道이다. 여기서 인간이 誠해지려는 수양이 필요하다. 誠은 진실무망(眞實無妄)한 천리로서 인간이 지향해야할 최고의 덕목이다. 儒家에서는 賢人, 君子는 聖人과 같은 전체 지성이 부족하므로, 實理를 밝히고, 천도를 실현하려고 노력해야만 한다고 한다. 수양 방법으로는 中庸 27장의 존덕성(尊德性)과 도문학(道門學)을 들 수 있다. 군자는 덕을 존중하고 도를 실행하지 않고서는 성인이 될 수 없다. 군자는 德性을 존귀하게 여기고, 학문에 정진해야만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2. 韓國의 天의 概念

우리나라에서 하늘의 개념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유사한 내용이 많다. 그러나 우리의 고유한 자연환경과 역사 및 생활양식에 따라 중국과는 다르게 형성된 것도 있고, 시대에 따라 하늘의 의미가 변화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하늘의 개념도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하느님이라 하는 표현을 신화나 고대 신앙의 기록에 의하면, 고조선인의 하느님은 푸른 하늘도 아니고, 만물의 주재자도 아니다. 하느님은 태양을 천지의 주인으로 믿어 일체의 생명과 활동의 근원이 태양으로부터 온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 하늘의 도를 믿는 天道는 國祖를 檀君에 두게 하였다. 단군이란 하늘의 도를 실현하는 지위에 있는 신성한 존재이었다. 하늘의 도는 천상신선계(天上神仙界)의 생활규범을 뜻하는데, 이것의 실현이 인간의 천계화(天界化)이다.

우리 민족의 구석기시대에는 叀神의 시대였고, 신석기시대에는 洞神의 시대였으며, 토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 및 철기시대 초기까지는 燾神의 시대였다. 삼국시대에는 이 三神을 동체이명(同體異名)인 삼위일체의 신이라 하였고, 통일신라 말에서부터 고려시대에는 三神思想을 하나로 묶어 한울님이라 하였다. 그 후 한울님이 변하여 한울, 한얼로도 변하였고, 한의 ㄴ이 아래로

내려와 하늘, 하늘, 하늘로 불렀다. 님은 존경을 표시하는 접미사로서 고려 조 이래 천지신명을 호칭할 때 붙여서 인격화하여 한올님이라 하였다.

천상신계와 천도의 실천 및 실천자를 붉의 뉘라 하였다. 붉은 광명의 신이요, 뉘는 세계이니 붉의 뉘란 신의 뜻대로 하는 세상이라는 의미이다. 붉의 뉘 행사 중에는 1년에 한번씩 하느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천행사(祭天行事)와, 국가와 민족 전체에 대한 大事를 회의에 부쳐서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부여에서는 영고(迎鼓), 고구려에서는 동맹(東盟), 그리고 무천(舞天)이라 하기도 하였다. 나라마다 다른 명칭을 사용하였지만, 제천행사의 의도는 붉의 뉘로서 광명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하늘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의식이다.

제천행사에는 무수한 등을 켜는데, 이는 광명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천상광명계(天上光明界)를 표상한 것이다. 신라 중엽에는 팔관회라는 이름으로 거행되었고, 고려시대에도 전승되었다. 고려시대에는 매년 중동(中冬)에 국력을 기울여 대대적으로 큰 행사를 하여 전 국민이 참여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배불숭유(排佛崇儒)로 인하여 팔관회가 폐지되었지만, 崇天意識은 유교를 통하여 존속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모든 관청에 부군당(府君堂)이라는 것이 있어서 매년 제사를 지냈으며, 관리가 새로 부임하면 신당(神堂)에 예배하는 것이 공식절차였다. 그리고 마을에서는 해마다 큰제사를 지냈는데, 제사 이름을 '부군굿'이라 하였다. 붉의 뉘가 부군으로 변하여 제천의식이 유지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와 같이 국가적인 제천행사는 없었지만, 고유한 제천의식은公私 구별 없이 유지되었다.

고대 우리 민족이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던 붉은 뉘는 광명의 본체인 태양을 뜻하는 말이다. 고구려의 高는 해(解)와 같은 의미로 태양을 뜻하고, 백제의 백(百),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朴赫居世)의 朴도 붉에서 나온 말로 태양을 뜻하고 있다. 백두산, 장백산, 소백산, 백운산, 태백산 등의 白도 붉에서 온 말이며, 금강산, 오대산, 설악산, 속리산, 치악산 등 명산의 상봉이 모두 비로봉인데, 이 '비로'는 '부루'에서 나온 말이다. 고대 신앙에서 天神은 산악을 통로로 하여 인간계에 내왕함으로써 산악은 인간계에 연결되는 천계의 일부라 인식한 데에서 비로봉이라 하였으며, 이러한 산과 봉우리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다.

옛날에는 하늘을 환국(桓國)이라고도 하였는데, 이 환은 광명을 뜻하는 밝과 같은 의미이다. 단군신화에서 환인(桓因)의 아들인 환웅(桓雄)이 환국(桓國)으로부터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늘의 법으로 다스리다가 그 소임을 아들인 단군에게 맡기고 승천하였다는 것이다. 단군에게 맡긴 소임이란 광명의 세계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天道를 행하는 것이다. 단군에서 나온 天道는 빛과 열과 광명을 주는 자연신으로서의 하느님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늘의 의미는 어언(語言)에 따라 달라져 왔다. 하늘의 다른 말은 한울인데 한울은 ‘한’과 ‘울’의 합성어이다. ‘한’은 접두사로사 명사 앞에 붙어서 크다는 뜻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한길(大路), 한밭(大田)과 같은 것이다. 울은 ‘우리’나 ‘울타리’의 준말로 속이 비고 위가 터진 물건의 가장자리를 둘러싼 부분을 말한다. 그리하여 한울은 큰 울타리라는 뜻으로 밖이 없는 사방, 끝이 없는 창공으로 하늘을 의미한다.

울은 또 ‘우리’라는 뜻도 있어 한울은 ‘큰 우리’라는 말인데, 이 말 속에는 ‘천지만물과 나’, 또는 천지만물과 우리는 일체감을 가진다는 의미가 내재해 있다. 전자는 현상으로 본 하늘이고, 후자는 덕성(德性)으로 본 하늘이다. 한울의 한은 같다(同一)는 뜻이 있다. 예를 들면 한 회사, 한 고향, 한 술밥과 같은 단어가 그것이다. 여기서 한울은 같은 울타리 한 울타리라는 뜻을 가진다.

하늘을 한얼이라고도 하는데, ‘얼’은 녘, 혼, 정신을 말한다. 한얼은 관대한 마음, 박애정신(博愛情神), 대자대비(大慈大悲) 등의 뜻을 갖고 있다. 한얼의 ‘한’은 바르다(正)는 뜻이 있는데, 한나절(正午), 한복판(正中), 한마음(正心) 등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한얼은 바른 녘, 정직한 마음으로 정의, 의리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 한얼의 ‘한’에는 ‘씩씩하다’와 ‘한창이다’의 뜻이 있어서, 한창때, 한여름, 한잠 등과 같은 용어가 있다. 한얼은 썩썩한 기백, 왕성한 정력을 뜻하며, 호연지기, 기사도 정신 등의 의미가 있다.

하늘의 ‘늘’은 언제나, 항상, 등의 의미가 있는데, 이는 영원성, 불변성, 항구성 등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의 ‘하나’는 우주의 근본은 유일무이하다는 종교적인 신을 뜻한다.

우리 민족이 사용하는 하늘의 의미는 오래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르게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처음에는 자연현상에서 하늘의 관념이 형성되었고, 그 후에는 불교, 유교, 도교, 기독교, 민속신앙, 기타의 교리에 의해서 관념이 확대되었지만, 고유의 이념을 유지해 왔다.

중국에서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을 강조해 왔지만, 한울이념에는 천인합일 사상보다도 인간을 존중하는 개념이다. 하늘과 인간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늘과 인간은 분리되어 있다는 관념인데 비해서, 한울은 인간이 하늘이고 하늘이 인간이라는 개념으로 인간과 하늘을 동일한 존재로 존중하고 있다. 하늘의 뜻이 바로 인간의 뜻이고, 인간의 뜻이 하늘의 뜻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유학은 공자의 천관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데, 특히 성리학이 도입된 후부터는 천인합일의 理法天의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사람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성은 天理로 순선(純善)한 것이나, 과도한 욕망으로 생기는 죄악을 敬과 誠으로 제거하고 본성으로 돌아가면 성인이 되는데, 이때 천과 인은 합일이 된다는 것이다.

불교에서 천관은 범신론적(汎神論的)인 천으로 六道(天,人,阿修羅,畜生,餓鬼,地獄) 중의 하나이다. 중생이 윤회하는 여섯 가지 길의 하나가 천으로 이해하고 있다. 중생이 고해의 윤회로부터 해탈하는 佛이 목표가 되므로 불교에서의 천은 종교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다.

도교에서의 천관은 우주 자연의 법칙, 즉 천도로 보고 있다. 도교에서의 천관은 天仙이 사는 곳을 천이라 하는 天堂說이다.

기독교의 천관은 주재적, 초월적 유일 신관이다. 기독교에서 “하느님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창조되지 않은 인격적 실재로서 그 자신 이외의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 그리고 하느님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거룩하고 성스럽고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하느님은 창조주이며, 인간은 피조물이며 原罪를 지니고 태어난 사악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인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조물주인 하느님과 같아질 수 없다. 따라서 동양의 천인합일사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하늘의 종교적 호칭은 매우 다양하다. 종교에 따라서 하늘

을 하느님, 하나님, 한울님, 한얼님이라 하기도 하고, 한자로는 天, 帝, 천제(天帝), 상제(上帝), 구천상제(九天上帝), 옥황상제(玉皇上帝), 황천상제(皇天上帝) 등 매우 다양하게 부르고 있다.

3. 敬天의 意義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경천은 “하늘을 공경한다”는 字意를 내포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심오하다. 경천은 천존(天尊)으로도 표현하고 있는데, 하늘을 존중하고 공경한다는 의미이다. 하늘을 존중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하늘을 신앙의 대상과 같은 존재로 인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하늘을 공경한다고 할 때에, 하늘을 공경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이유가 있다. 대순사상에서 하늘을 공경하는 본질에 대해서 論究해 보고자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天을 하늘, 천상과 천하, 천지, 천명, 천문, 화천 등으로 부르고 있다. 하늘은 지상의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천상을 뜻하며, 천하는 지상세계를 의미하며 하늘과 땅을 천지라 한다. 하늘은 노천(老天)과 명천(明天)¹⁰⁾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노천은 묵은 하늘로 선천시대의 하늘을 말하고, 명천은 새로운 세상이 열렸을 때의 하늘을 뜻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역사발전을 선천세계와 후천세계로 나누고 있다. 이제까지의 세계를 선천세계라 하고, 앞으로 전개될 사회를 후천세계라 하는데, 후천세계는 인류의 이상사회로서 선경이라고도 한다. 후천세계는 다른 종교의 내세관(來世觀)인 극락이나 천당과 같은 이상세계를 의미하지만, 대순사상에서 제시하는 후천세계는 극락이나 천당과는 다른 독특한 내세관이다. 극락이나 천당은 인간이 사후세계(死後世界)에서 영생을 회구한 내세관이지만, 선경은 현실 세계를 말한다. 후천세계는 인간이 살고 있는 현실 사회가 이상세계로 변화된 상태로서 지상선경이라고도 한다. 선천세계에서 후천세계가 되는 것은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天命은 儒家의 관념과 같이 인간사회와 자연현상이 천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간을 포함한 만물은 천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천

10) 전경, 교법 제3장 6절, p. 246.

명은 하늘이 인간의 운명을 지배함으로 하늘의 뜻을 알고 하늘의 뜻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대순사상에서 천명은 창시자인 강증산의 계시와 언명(言明)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천명을 따르는 것이 敬天이라 한다.

천문은 하늘의 별을 보고 세상사와 인간의 운명을 파악하는 것을 뜻한다. 창도주인 강증산은 “천문을 보시려면 대체로 구름으로 하늘을 덮고 성수를 하나씩 나타나게 하여 종도로 하여금 살피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¹¹⁾ 라 하여, 별의 운행과 상태를 보고 세상일과 인간의 운명을 예측하였다고 한다.

화천은 대순진리를 설파한 강증산, 조정산, 박한경 등이 세상을 떠난 것을 뜻한다. 화천은 위대한 대순진리를 종통으로 계승하여 세상에 알린 절대자가 천상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말한다. 화천이란 표현에서 인간이 죽으면 천상세계에 올라가 신명계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천상은 신들이 사는 세계를 말한다.

이러한 하늘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敬天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하늘은 主宰天으로 보고 있다. 창도주 강증산을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 또는 구천상제(九天上帝)로 신봉하고 있다. 그리고 종통을 계승한 조정산(趙鼎山)을 도주(道主)와 옥황상제(玉皇上帝)라 부르고 있는데, 이러한 종교적 호칭은 절대자의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강증산은 원래 九天에 있었는데 인간계가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극도로 혼란하여, 인간을 구제하기 위해 하천(下天)한 절대자이다.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딴 것이다.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이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접맥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하다가 이 동토(凍土)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母岳山金山寺) 삼층전(三層殿) 미륵금불(彌勒金佛)에 이르러 삼십년을 지내다가 최제우(崔濟愚)에게 제세대도(濟世大道)를 계시하였으되 제우가 능히 유교의 전현을 넘어 대도의 참 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甲子년에

11) 전경, 권지 제2장 9절, p. 278.

드디어 천명과 신교(神敎)를 거두고 辛未年에 강세하였노라.¹²⁾

대순사상에서는 "상제께서 천하를 대순하시고 광구천하·광제창생으로 지상선경을 건설하시고자 인세에 강세(降世)하셔서 전무후무한 진리의 도를 선포하셨다."¹³⁾고 한다. 구천상제로 신봉하는 강증산이 진멸의 위기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강세하여, 전무후무한 새로운 도를 폈다는 것이다. 즉 광구천하와 광제창생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진리의 도를 전개하였다는 것이다. 광구천하와 광제창생을 위해서 구천상제는 천지공사(天地公事)를 하였다. 천지공사는 "내가 삼계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모든 도수를 뜯어 고치고 후천의 새 운수를 열어 선경을 만들이라"¹⁴⁾ 한 데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천지인(天地人)의 삼계 대권을 가진 구천상제가 후천 세계를 건설하려는 공사를 말한다. 천지공사는 하늘과 땅을 새롭게 건설하고, 사람과 신명이 교류하게 하여 새로운 세상인 선경을 건설하려는 것이다.

둘째, 경천은 구천상제, 도주의 가르침을 깨닫고, 깨달은 바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경천의 참 의미는 도의 근원은 하늘에 있는데, 이러한 도의 근원을 정립한 것이 구천상제라는 것이다. 구천상제가 주재하는 인간이, 그 가르침을 깨닫고 실행하는 것이 경천이다.

Ⅲ. 信仰과 修道

대순사상에서는 신앙을 道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修道라 하고 있다. 도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종교와 유사한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수도라 한다. 따라서 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교의 의미,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도와 수도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신앙의 본질, 도의 의미, 수도의 목적과 수도생활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信仰의 本質

12) 전경, 교운 제1장 9절, pp. 155-156.

13) 대순지침, p. 17.

14) 전경, 권지 제1장 21절, p. 271.

인간이 종교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상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의 기능은 인류가 문명생활을 하면서부터 시작되어, 현대까지 계속되고 있다. 과학과 문화가 발달하여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과거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였어도 완전히 종교를 떠나서 생활할 수 없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유한한 존재일 수 밖에 없어, 신성한 힘이나 초월적 영역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종교적 존재라 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성, 즉 죽음과 같은 심각한 고뇌를 접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성한 초월적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¹⁵⁾

인간이 생존과정에서 겪는 고통과 고난은 신앙생활을 통해 극복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고 있다. 어떠한 종교이든지 개인이나 집단, 또는 인류 역사가 지향하는 초월적인 이상이 주어져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윤리의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¹⁶⁾ 종교는 초월적 존재를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신비성을 느끼고 도덕적으로 성숙한 인격을 함양케 한다.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는 종교적 신념의 형식은 누미노제(Numinose), 종교성(religiosity), 原型的 存在論(archaic ontology), 종교적 인간(homo religious) 등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다.¹⁷⁾ 이러한 것들은 인간이 절대가치를 추구하려는 인간의 선형적이고 존재론적 추구 본성을 뜻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실존적 제약성을 극복하고 삶의 정신적 완성을 추구하는 열망을 갖고 있다. 인간이 근원적 열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종교이다. 종교인들은 종교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며, 정신적으로 만족한 삶을 살고자 한다.

그리하여 종교는 고대에서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었고, 인간의 의식과 문명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형태로 발전되고 변화되어 왔다. 종교는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 상황에 따라 변천되어 왔다. 그리하여 종

15) 이은봉, *종교세계에의 초대*(서울 : 지학사, 1985).

16) 柳東植, “韓國의 民俗·宗教思想 概說”, 李丙燾 의 譯, *韓國의 民俗·宗教思想* (서울 : 三省出版社, 1981), p. 11.

17) 尹以欽, *韓國宗教研究*(서울 : 集文堂, 1986), p. 14.

교의 발전은 先史宗教, 古代宗教, 世界宗教, 現代宗教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선사종교는 주술(呪術)에 의한 생존동기에 의해 형성되었고, 고대종교는 존재론적 자아를 추구하고자 하였으며, 세계종교에서는 인류의 보편적 구원을 추구하고, 현대에서는 인간의 정체감을 새롭게 추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동기에 의해 종교는 발전해 왔는데, 한 시대의 동기는 나타났다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에 와서는 누적되어 복합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각 시대의 종교적 동기는 그 시대에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인간 생활의 근본적인 종교적 동기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사회는 多宗教的이다. 다종교 상황은 종교의 세속화를 가져왔으며, 종교인들이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는 여러 종교들 가운데 하나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 종교적 신념체계에 있어서 자기 종교만이 절대적이라는 관념이 약화되고, 다른 종교에도 종교적 정당성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성과 과학의 발달로 전통적 종교 교리의 신뢰성이 약화되었다. 그 동안의 종교가 현대인들의 지적성향과 인간생활의 유한성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선사시대나 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삶의 문제와 인간의 실존적 제약성을 완전히 극복한 것도 아니다. 인간 존재의 유한성을 해결하지 못한 현대인들은 종교적 생활에서 완전히 탈피할 수는 없다. 현대인들은 전통적 교리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면서도, 종교생활을 하고자 하는 욕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현대인들은 제도종교에 대해서는 거리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종교생활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현대인들의 종교적 성향과 문화적 태도를 잠재종교(hidden religion)라 한다. 현대인들은 일반화된 종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으면서도, 초월적인 절대자에게 의존하려는 종교성을 갖고 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종교를 접하고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간의 한계성, 즉 죽음이나 극도의 불안과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된다.¹⁸⁾ 종교에서 죽음은 육체의 소멸이라는 현상에 한정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종교에서 죽음은 육체의 소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종교적 삶으로 이행되고 있다. 그리하여 종교에서는 인간은 두 번

18) 이은봉, 前揭書, pp. 16-17.

태어난다고 한다. 첫번째는 인간의 출생이고, 두번째는 종교적 태어남이다. 이러한 종교적 태어남은 고등 종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원시사회에서도 있었다. 원시인들의 종교적 태어남은 성년식(成年式)에서 볼 수 있다. 일정한 나이가 되어 성인이 되면, 단순한 생물학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원시인들의 성년식은 소년·소녀였던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성인으로 재생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종교적 의례였다. 옛사람을 죽이는 과정에서 소년·소녀들에게 죽음과 맞먹는 고통을 부과하였고,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난다고 생각하였다. 현대의 성년식은 원시시대 성년식의 종교적 의미는 없어졌지만, 재생의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는 남아있다. 종교적 재생(宗敎的 再生)의 경험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져야 참다운 종교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종교적 깨달음은 직접적인 체험을 하는 자각을 통해 이루어져야 참다운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유한성을 자각하였다는 것은 무한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¹⁹⁾ 無限의 경계에서 보지 않으면 有限이 유한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한함을 인식하려면 무한이 있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영원(永元)은 시간적으로 무한함을 뜻하고, 무한이란 공간적으로 말한 것이다. 영원은 무시간이고 무한은 무공간을 말하므로 그 대상을 표상할 수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無란 有에 대한 無가 아니라, 有無를 초월한 無를 말한다.

영원하고 무한한 것은 종교적 세계이다. 종교세계는 일상적인 세계와는 달라서, 일반적인 용어나 사유로는 종교세계를 적절하게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종교세계는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불교에서는 무량광(無量光), 무량수(無量壽), 즉 아미타불이라 하고, 기독교에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다. 신이나 佛은 인간의 차원을 넘어선 곳에 존재함으로써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라 한다. 인간이 자신의 유한성을 철저히 체험하여 자각하지 않으면, 이러한 존재자를 인식하고 감득(感得)할 수 없다고 한다.

19) 上揭書, p. 18.

이러한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자를 단순하게 지적으로 인식하고 인정한다고 해서 종교적 세계를 깨달은 것이라 할 수 없다. 영원하고 무한한 세계가 존재하고 신앙의 대상을 인정하는 데에는 단순한 지적 인식의 차원이 아니라, 절대적 존재를 진정으로 믿고 존경하는 외경심(畏敬心)이 있어야 한다.

외경심은 오토(R. Otto)에 따르면 ① 피조물 감정, ② 전율하는 신비감, ③ 끌리는 감정 등 세가지 감정이 혼합되어 있다고 한다.²⁰⁾ 그리고 절대적인 타자에 대해서 갖는 聖(Numinose)의 감정이라고도 하였다. 피조물 감정은 인간이 신 앞에 섰을 때 자신이 너무나 미소(微小)하고 열등하며 죄지은 자와 같은 심적 태도를 갖는 것이다. 전율하는 신비감은 무섭고 존엄하고 무한한 힘이 있는 자에 대해서 이해를 초월하는 존재로 인식될 때에 생기는 감정이다. 전율하는 신비감은 두려움이나 공포와는 다른 감정이다. 두려움이나 공포는 본능적 충동적인데 비해서, 전율하는 신비감은 자신과 무한하고 영원한 절대자와의 상상을 초월하는 체험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이다. 그리고 인간이 피조물 감정과 전율하는 신비감을 가지면서도 끌어당기는 힘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공포나 두려움을 느껴 도피하고자 하는 감정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절대적인 존재에게 의지하고 싶고 구원받고 싶은 감정을 갖게 된다.

종교는 경험하는 것이고, 체험하여야 종교심이 커진다. 경험이란 외부로부터의 감각을 통해서 얻은 내용을 마음의 의식에 떠올린 것을 의미한다. 경험은 외부에서 준 것에 대해서 마음속의 인상을 뜻하는 것으로 심리적 측면이 많다. 체험은 경험의 일종이지만, 경험과는 다르다. 경험은 객관적인데 비해서 체험은 주관적이다. 경험은 외적 지각에 대해 비슷하게 지각하고, 내적 반응을 하여 객관적이라 할 수 있지만, 체험은 동일한 경험을 하더라도 각기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에 매우 주관적이다. 종교생활과 종교심은 단순한 경험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종교는 일상적이고 잠정적이며 세속적인 사실에 만족하지 않고, 이러한 것을 초월한 영원하고 무한한 세계를 체험하고자 하는 것이다.

종교적 체험은 직관적이며, 모순통일적(矛盾統一的) 성격을 갖고 있다. 종

20) 上揭書, pp. 19-20.

교적 체험은 추리적 사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것을 직접 느낀 직관적 확신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논리적 사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모순들을 통일하는 체험을 하는 것이다. 종교생활에 있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과,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것을 체험하는 것이다. 종교인들은 신비적 체험을 통해서 확신하게 된다. 신비적 몰아체험(沒我體驗)이 절대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라는 자기확신을 갖게 하고 종교심을 강화시킨다.

종교적 체험은 전인적이고 생활에서 실천하게 만든다. 종교적 체험은 인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교리를 실행하게 한다. 종교적 체험은 설명하기 어렵지만 유사한 체험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에서 정당성을 갖게 된다. 동일한 종교를 믿는 종교인들은 비슷한 종교적 깨달음을 체험하는데, 이러한 체험이 종교적 신념체계를 형성하게 한다. 종교적 체험을 한 사람들은 절대적 신념체계를 형성하게 된다.²¹⁾ 종교적 신념은 종교인에게 있어서는 다른 어떤 신념 보다 우선하며, 다른 가치보다 장위에 있는 궁극적 가치 판단 기준이 된다. 동일한 종교를 믿는 종교인들은 자연, 사회, 인간의 내면적 경험 등의 모든 분야에서 교리에 따라 통일된 기준으로 해석하고, 삶의 궁극적 방향과 목표도 종교적으로 설정하고 생활에서 실천하려 한다. 그리하여 같은 종교를 믿는 종교인들은 교리에 따라 동일한 신념체계를 갖고 있으며, 교리에 따른 생활을 하고 있다.

2. 修道의 意義

(1) 道の 意味

대순사상에서 道는 신앙의 본질을 내포하고 있다. 道는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실행하는 것(道之覺)이라 한다. 道는 영원하고 무한한 초월적인 것이라는 것을 지적으로 인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각(自覺)하여 종교적 신념체계를 형성하고 실행해야만 한다고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도를 깨달으려는 것을 공부, 또는 修道라 한다. 도는 대순진리회의 신앙

21) 尹以欽, 前揭書, p. 12.

의 본질을 의미하며, 수도를 통해서 종교적 체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대순 사상의 도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도는 중국의 선진(先秦)시대에서부터 사용되어 왔는데, 그 의미는 매우 다 의적이고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²²⁾ 殷 · 周 시기에 道 자가 금문(金文)에 보이는데, 사람이 다니는 길을 뜻하였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는 “도는 다니는 길(所行道也)이라 하여 道는 길을 뜻하는데, 사람이 통행하는 길만이 아니라 形而上學的인 의미를 가지면서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道는 십자로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문제에서 유추하여 인간 생활의 가치판단에 적용하고 있다. 論語 學而編에 있는 “道千乘之國”의 道字는 ‘다스리다’ 라는 治의 뜻으로 사용되는데, 이는 禮와 利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하고 어느 것을 배제할 것인가 하는 가치판단이 필요하다²³⁾는 것을 의미한다. 나라를 禮로 다스릴 것인지. 아니면 利로 다스릴 것인가를 판단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도는 가치 판단에 따라 선택을 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하나로 곧게 이룬 것을 道라고 한다(一達謂之道)”라 하여, 도는 곧은 길을 뜻하였다. 道가 곧은 길이라는 의미가 사회의 변천과 언어의 발달에 따라, 그 의미가 확대되어 다양해지고 풍부해졌다. 중국에서 道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²⁴⁾

첫째, 도는 확정된 방향이 있는 사람이 왕래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도로이다. 여기서부터 의미가 확대되어 도는 사물의 운동변화의 필연적 추세와 법칙성이 되었다.

둘째, 도는 곧고 굽히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은 반드시 이 길을 바로 가야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오차가 생길 수 있다. 여기서 그 의미가 확대되어 도가 사람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원칙

22) 道의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拙稿, “道通眞境의 宗教的 意義”, 大巡思想論叢, 제6집(大巡思想學術院, 1998) 參照.

23) 李相珣, “孔孟之道의 現代社會思想的 意味”, 道原 柳承國博士 華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東方思想論巧 : 그 本質과 現代的 解釋(서울 : 종로서적출판주식회사, 1983), p. 274.

24) 張立文, 道(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89), 權瑚 譯, 道(서울 : 東文選, 1995), pp. 36-37.

과 방향이 되었다.

셋째, 도에는 출발점과 종착점이 연계되어 있어 일정한 거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이 노선을 통과해야 한다. 이로부터 도의 의미가 확대되어 사물의 운동변화의 과정이 되었다.

넷째, 도는 장애 없이 통달해야 하는데, 그 의미가 확대되어 사회 인간사의 통달이 되었다.

다섯째, 도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다. 길을 걷는 것을 다닌다고 하는 데에서 사람을 이끌어 길에 들어가는 것이 도이다. (導는 예전에 道라고 썼다.) 여기서부터 의미가 넓어져, 도는 인도와 이치의 의미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도는 곧은 길에서 '행한다', '행하기 위한 기술', '방법'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²⁵⁾ 도는 모든 인간에게 보편 타당한 가치로 인식하여 모든 삶의 방식은 도라 할 수 있다. 인간이 참다운 행동을 하는 것을 도라 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인간이 행하는 모든 활동에는 각각 특수한 방법을 따라야 하며 지켜야 할 법도가 있다는 관점에서 도를 붙이고 있다. 동양에서는 도를 중요한 가치기준으로 중시하여 철학, 문학, 사상, 예술, 문화 등 정신적·물질적인 면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왔다. 여기서 道德, 道理, 道義 등의 용어가 생겼고, 특정 분야에서 技藝나 方術, 武術 등에서의 방법 등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즉 醫術을 의도(醫道), 무술을 무도(武道)라 부르기도 하고, 藝道, 碁道, 書道, 茶道, 柔道, 跆拳道, 劍道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한편 도를 인간 생활에 적용하여 사물이 운동하거나 변화할 때에 따라야 할 보편적인 법칙, 혹은 만물의 本體를 의미하게 되었다. 도는 삶의 길로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생활방식(way of life)으로 이해하고 있다.²⁶⁾ 도를 인간의 행위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과 원칙 등을 뜻하게 되었다.

동양에서는 도를 종교상 教義에 깊이 통하여 알게 되는 이치, 또는 교의를 깊이 깨달은 지경으로 사용하여 왔다. 동양에서는 유도(儒道), 불도(佛道), 선도(仙道), 도교(道敎) 등이 있다. 도는 중국을 중심으로 동양에서 주로 사용하였고 발전시켜 왔는데, 중국 철학사상의 2대 조류인 유가(儒家)와 도가

25) 金勝東, 道教思想辭典(부산 :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6), p. 170.

2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6 (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道家)에서 각기 다르게 인식되고 주장되어 왔다. 그리고 인도에서 창시되고 동양의 각국에서 발전한 불교에서도 불도(佛道)라 하여 도를 강조하고 있다.

儒家에서는 도를 인간이 지켜야 할 규범, 인륜 등을 강조하는 人道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공자는 論語 述而에서 “도에 뜻을 두고, 덕에 근거하며, 인을 의지하고, 예를 체득하라(志於道 據於德 依於仁 遊於藝)”고 하였다. 공자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를 알고 도를 행하는 것이라 하면서, 일생을 도를 알리는 것을 소임으로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는 人道를 말한다. 공자가 말하는 인도는 仁, 禮와 德을 강조한다. 공자는 도덕 지식을 중시했으며, 실천을 강조하였다. 공자가 강조하는 것들은 효제(孝悌), 충서(忠恕), 신의(信義), 中庸 등이다.

노자는 天道自然에 바탕을 둔 本體論을 전개하여 도는 만물의 종주라는 사상을 전개하여 道論을 전개하였다. 그는 도는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지만, 우주 만물의 생성과 존재하는 근본원리로 보고 있다. 도가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만물은 도에 의해 생성되고, 生滅 變化를 반복하지만, 도는 만물의 생멸과 변화를 초월하여 영원한 것이라 한다. 도가에서는 유교적인 지식이나 제도, 위정자의 간섭 등을 배제하고 모든 사람들이 천지만물의 생성자인 도를 체득하여 자연과 같이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노자는 이러한 無爲自然은 人道의 근본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 원칙이라 한다. 그리고 장자는 인간의 도덕 수양은 도를 체득하고 도에 통달하는 것으로서, “천지와 정신이 합해져 하나가 되는(與天地精神合而爲一)”, 지극한 도의 경지를 실현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도가의 도는 인간 세상을 완전히 초월하여 정신이 절대 자유로운 경지이며, 도덕 수양의 최고 경지를 말한다.

한편 불교에서는 인간고(人間苦)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의 자유로운 사색과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의 만족을 모르는 욕망이 없어진 상태를 고멸성체(苦滅聖諦)라 하여 고통을 멸하는 진리라 한다. 고통을 멸하는 길을 도의 진리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팔정도(八正道)라 한다. 불교에서는 인간고(人間苦)를 소멸하는 데에는 正見, 正思, 正語, 正業, 正命, 正念, 正精進, 正定을 행해야 한다고 한다. 正見에 의해 도리에 맞는 생활을 하고, 마음을 바

르게 통일(正定)하면 대각(大覺)의 경지인 해탈과 열반(涅槃 : Nirvana)에 도달하게 된다고 한다. 팔정도는 중도(中道)라고도 하는데, 중도란 욕망에 의한 탐욕적 생활과 관능적인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생활과, 자신의 신체를 확대하는 고행도 괴롭기만 할 뿐 효용이 없으므로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도를 ‘우주 대원(宇宙 大元)의 진리’, ‘영원한 진리’,²⁷⁾ ‘우주 만상의 시원(始原)이며 생성변화의 법칙’²⁸⁾ 등이라 한다. 도는 우주의 영원한 진리이며, 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법칙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도의 개념은 유가, 도가, 불교 등에서 전개한 도의 개념을 통합하여 종교적 사상으로 체계화하였다.

그리고 “道란 부단불식(不斷不息)하여 무형무적(無形無跡)하고, 무성무취(無聲無臭)하지만 공명정대하여 무위무가(無爲無假)하며 무편무사하여 두과 지리(豆瓜之理)와 같다.”²⁹⁾ 고 한다. 도란 중단과 휴식이 없으며 형태와 자취도 없고, 소리와 냄새도 없다고 한다. 그리고 도는 공명정대하여 어떠한 조작이나 거짓이 없고, 편파적이지 않아서 곡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자연적 이치라 한다. 즉 도는 어떠한 형태나 유형이 없는 자연적 현상이지만, 우주와 인간사회의 근본원리라는 것이다.

한편 “도가 음양이며 음양이 이치이며, 이치가 곧 경위며 경위가 법이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³⁰⁾ 고도 한다. 즉 도는 天地인 음양에 의해 나타나는 자연현상과 인간 생활의 이치, 인간이 지켜야할 경위나 법 등을 총칭한다. 도가 음양이며 음양의 이치라 한 것은 음양이 만물을 이루는 본체가 된다는 음양사상에서 전개된 개념이다. 음양사상은 十翼을 갖추어서 완성된 易經(周易)에서 체계를 형성하였고, 노자와 장자를 중심으로 한 道家, 그리고 공자와 맹자를 중심으로 한 儒家 등에 의해 발전되었다.

역경은 태극으로부터 음과 양이 분할되고, 각각 다시 음과 양을 겹쳐 4象(老陰, 老陽, 小陰, 小陽)을 만들었다. 4象에 각각 음과 양을 겹쳐 8괘를 만

27) 대순지침, pp. 23-24.

28) 대순지침, p. 44.

29) 대순지침, pp. 92-93.

30) 대순지침, p. 18.

들고 있는데, 8괘는 천지만물의 현상과 형태를 상징한 것인데, 8괘의 한개 한개를 서로 겹쳐서 64괘를 만들어 우주의 구성과, 인간의 吉凶禍福과 處世之道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역경의 도는 만물의 운동변화의 법칙으로 “한번 음하면 한번 양하는 것을 도라 한다(一陰一陽之謂道)”라 하였고, 음(坤)과 양(乾)이 상호 대립한다는 陰陽二元論을 강조한다. 역경에 따르면 하늘과 땅을 비롯하여 우주 만물은 독립적이지만 상호작용을 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에 의해 변화가 생기고 통일된 세계를 만들고 있다고 한다. 음양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은 坤과 乾인데, 곧과 건 중 하나만 없어도 변화는 생길 수 없다. 乾은 무한히 넓고 큰 하늘로 아버지로 비유하여 위대한 창조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 힘을 통해 만물은 생명을 갖게 된다. 반면에 坤은 조용하고 부드러우며 순종하는 어머니로 한없이 넓은 대지를 의미하는데, 모든 것을 낳고 육성할 수 있다고 한다. 음양은 대립되어 있으면서도 통일되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우주를 변화시킨다. 도는 한번 음하고 한번 양하는 것이지, 음양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다. 도는 음양을 기초로 존재하지만, 음양이 변하면서 운동하는 법칙이라는 것이다.

음양의 이치에 의한 변화는 자연과 인간에게 모두 적용된다고 한다. 인간은 음양의 법칙과 원리를 체득하면, 자연의 법칙과 원리를 사용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한다.³¹⁾ 역경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고 하여, 어떠한 불운에서도 행운의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행운을 맞을 준비를 하여야 하고, 행복한 상태에서는 불운의 날을 예상하여 경계하여야 한다고 한다.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관리하고 개척할 수 있으므로 부귀한 때에 교만하지 말고, 빈곤하더라도 비굴하지 말라고 한다.

역경은 陰陽對峙로 天地人 三才를 해명하는 것으로 전국시대의 음양가와 상통하게 되었고, 陰陽兩儀의 본체로서 宋代 理氣說의 근원이 되었다. 陰陽兩儀로 모든 것을 해명한 역경은 秦漢代에 이르러 五行思想과 결합되면서 陰陽五行으로 복잡하게 전개되어 왔다.

노자는 “道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31) 徐相潤 譯解, 周易 (서울 : 韓國協同出版社, 1983), pp. 19-20.

낳는다. 만물은 음에너지를 등에 지고 양에너지를 가슴에 안고 음에너지와 양에너지가 통일된 힘으로 조화를 이룬다”³²⁾고 하여, 도가 만물 생성의 근원이라 하고 있다. 우주의 만물은 도에서 태어나는데, 만물은 두 가지 대립되는 음양이 통합되어 조화를 이룬다고 한다. 노자는 음양의 조화를 이해하고 자연과 같이 살아가면, 우주 전체가 조화되는 영구불변의 無爲의 德을 몸에 지닌 순진무구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한다. 인간이 無爲自然으로 돌아가려면 음양의 이치를 알고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장자도 도는 우주만물의 본체라 하고, 만물은 모두 도에 의해 생성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도는 천지가 있기 전에서부터 존재했지만, 그속하고 고요하여 형상을 볼 수도 없고 감각으로 느낄 수도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도에는 사실 작용도 있고, 믿을 수 있는 증거도 있는 진실한 존재로서,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 한다. 도는 무한히 광대하고 형체와 상태도 없지만,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만물을 포용한다고 한다.

그리고 장자는 “은 천하가 한 氣로 통한다(通天下一氣耳)”고 하면서, 천지는 형체 중 가장 큰 것이고 음양이 氣體 중 가장 큰데, 도가 일체를 총괄한다고 한다. 그는 氣가 만물의 기본을 이루는 원질인데(通天下一氣耳), 그것이 음양으로 나뉘고 음양의 기가 서로 교류하여 새로운 조화를 형성한다고 한다. 모든 개체의 생명은 천지와 음양, 두 기의 조화로운 결합의 산물이라고 한다. 모든 개체 생명은 천지에 근원하고 만물은 본래 동일한 본체에서 형성된 것이어서 만물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장자는 우주는 모든 생명의 발생 근원이며 최종적으로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개체 생명은 우주와 분리될 수 없다고 한다. 그는 도의 관점에서 사물을 인식할 때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으며,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沒我一體가 될 수 있다고 한다.

儒家에서는 인간의 생존방법(人道)이 天理自然(天道)을 본 받아서 설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초기에는 인성과 천도를 중시하여, 공자는 천도와 인성을

32) 道生一，一生二，二生三，三生萬物，萬物負陰而抱陽，沖氣以爲和. 金敬琢 譯解，新譯 老子(서울：玄岩社，1985)，pp. 206-207.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다.³³⁾ 유가에서 인성과 천도를 종합한 것은 新儒學을 주창한 周濂溪의 태극도설(太極圖說)이다. 太極圖說은 前後 2段으로 천도론과 인도론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천도론은 무극이 태극이라 하여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극은 현상에 있어서 근본적인 원형 또는 원본을 찾아가는 궁극적인 것이고, 무극에서 변형된 태극은 원형이 현상으로 변형해 가는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음양인 태극에서 天地五行이 형성되는 것을 밝히고, 하늘과 땅을 남자와 여자로 대비하여 우주만물의 생성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생명을 창조하듯이 음양이 교감하여 만물이 생성되고 변화한다고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이러한 도의 개념을 통합하여, 종교적 사상으로 체계화하였다. 대순사상에서는 “도는 우주 만상의 시원(始原)이며 생성 변화의 법칙이고, 덕은 곧 인성의 신맥(新脈)이며, 신맥은 정신의 원동력이므로 이 원동력은 윤리도덕만이 새로운 맥이 될 것이다.³⁴⁾”라 한다. 도는 우주 만물을 생성하고 변화하는 법칙으로서, 도에서 덕이 생성되었다 한다. 도에서 생성된 덕은 새로운 정신을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대순사상의 도는 음양의 대립에 의한 우주와 만물의 생성과 소멸하는 이치를 근본으로 하며, 여기서 인간 생활에 적용되는 모든 경위와 법이 나온다고 본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음양에 의해 생성되고 변화하는데, 여기에는 오묘한 이치와 경위, 법 등이 있는데 이를 도라 한다. 인간도 우주에 의해 생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도 음양의 이치를 따르는 도에 의한 생활을 해야만 한다.

대순사상에서 도는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것에는 각각의 법칙과 이치가 있다고 전제하여, 하늘에는 천도(天道)가 있고, 땅에는 지도(地道)가 있으며, 사람에게에는 인도(人道)가 있으며, 그리고 인간과 신명세계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강조하는 신도(神道) 등이 있다. 天道는 우주의 순환 원리와 법칙을 뜻하고, 地道는 지상에 존재하는 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이치를 말하며, 人道는 인간이 생존하는데 지켜야 할 도리나 법 등을 뜻한다. 그리고 신명과 인간

33) “思知人，不可以之不地天”(中庸), “聖人有以見天下之動而觀其會通，以行其典禮”(易繫解七上), “明於天地道，而察於民之故”，“聖人以通天下之志，以定天下之業”.

34) 대순지침, p. 44.

의 관계에 있어서도 陰陽合德의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神人調化를 강조하고 있는데, 신명세계의 구성과 인간과의 관계에 적용되는 것이 神道라 한다. 이러한 도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天道와 地道는 천지지도(天地之道)라 하는데, 인간계와 자연계를 관통하는 영원불변의 진리, 자연의 법칙, 필연(必然)의 理法 등을 의미한다. 천도는 모든 진리의 근원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행위의 궁극적 준칙으로 보고 있다. 地道란 天道와 음양관계에 있는 지상의 도로써, 하늘과 땅이 상호 협력하여 만물을 생성하고 변화시키는 원리이다. 易經의 說卦傳에 “天地道を 세워 음과 양(是以立天地道 曰陰與陽)”이라 하였다. 하늘과 땅은 음양으로 영원히 계속되는 법인데, 이 법에 의해 우주는 조화되고 유지된다고 한다. 그리고 繫辭에 “천지의 위대한 작용은 끝없는 낳음이다(天地之大德曰生)”라 한 것과 같이, 무한한 생산을 하는 것이 자연의 본질이고 理法이라 한다.³⁵⁾ 천지는 자연적 작용을 낳게 하는 기본적 요소로서 음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생산을 하는 본체로 보고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태극상태의 음양에 의해 만물이 생성되고 변화하는 것을 음양합덕이라 한다.³⁶⁾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성향과 특성이 대립적인 음과 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양이 결합하여 우주 만물을 생성하고 소멸하는 운동이 영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즉 음과 양이 相反應승인 대립과 통합을 반복하는 합덕을 통해 생명이 창조되고 성장과 소멸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연의 생성과 변화, 만물의 존재는 대립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음과 양의 분열과 통합의 영속적 순환에 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음양합덕은 우주 만물의 생성원리이며, 사물이 창조된 곳으로 돌아가고 새롭게 다시 창조되는 순환을 영속적으로 하는데, 이를 道라 한다. 인간과 만물은 생멸변화를 되풀이 하지만, 도는 만물의 생멸과 변화를 초월하여 유구하고 무한한 대순을 한다고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음양합덕에 의한 영속적 순환을 생장염장으로 설명하고

35) 李完栽, 前揭論文, p. 15.

36) 음양과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음양합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과 논의는 大巡思想學術院에서 陰陽合德 特輯號로 발간한 大巡思想論叢, 제2집(1977)을 참고하기 바람.

있다. 생장염장은 우주의 만물이 생성되고 성장하고 결실을 맺고 저장한다는 것인데, 이는 근본으로 돌아가는 영속적 순환인 대순을 의미하는 것이다. 선천세계는 生長을 하고, 후천세계에서는 斂藏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장염장은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나는 생·장·염·장(生長斂藏)의 사의(四義)를 쓰나니 이것이 곧 무위이화(無爲而化)니라.³⁷⁾

둘째, 인간이 인격을 완성하여 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도라 하는데, 이는 인도(人道)라 할 수 있다. 인도는 인간으로서 실천해야 할 기본적인 도리를 뜻한다. 대순사상에서는 도를 닦는다는 것은 덕을 쌓고 마음을 바로 가지는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대순사상에서 인간이 도덕을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儒家에서의 仁, 그리고 불교에서 인간의 번뇌를 탈피하기 위한 삼학 수련(三學 修鍊)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이 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도의 실현은 誠을 실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순사상에서 인간의 도는 誠을 실천하려는 태도라 할 수 있는데, 誠이란 부단한 노력,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것, 집중, 정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誠을 강조하는 것은 儒家에서의 誠을 중시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성실한 생활은 진실한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眞心堅守福先來”³⁸⁾라 하여 진실한 마음을 견지하면 福이 온다고 하였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이 적은 것은 한마음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데 원인이 있으니, 자기 일에 정성을 다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한다.

이제 범사에 성공이 없음은 한 마음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라. 한 마음만을 가지면 안 되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무슨 일을 대하던지 한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을 한할 것이로다. 안되리라는 생각을 품지 말라.³⁹⁾

셋째, 대순사상에서는 신도(神道)라는 특성이 있다. 신도(神道)는 인간과 신이 상호 직접적인 감응관계(感應關係)가 있다는 특수한 도의 개념이다. 神道란 인간이 신의 뜻을 존중해야 하며, 인간의 행동에는 신명이 같이 한다

37) 전경, 교법 제3장 27절.

38) 전경, 교법 제2장 3절, p. 234.

39) 전경, 교법 제2장 5절. pp. 234-235.

는 개념이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신명의 도움이 있어야 성취할 수 있는데, 인간이 참된 마음을 갖고 일을 할 때만이 신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를 대순사상에서는 신인조화(神人調化)라 하는데, 신인조화는 인간을 陽으로 보고 신을 陰으로 전제하여 신과 인간이 상합하여야만 한다는 음양합덕을 적용한 사상이다. “신이 음이 되고 사람이 양이 되어, 음양이 서로 합한 연후에야 변화의 도가 있으리라(神爲陰 人爲陽 陰陽相合然後 有變化之道也)”⁴⁰⁾ 하였는데, 이는 신과 인간이 상합하여야 우주와 인간사회가 바람직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과 인간이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덕을 상대방으로부터 보완하여 조화를 이루고, 완전함을 추구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이다.⁴¹⁾

(2) 修道의 意義

수도는 인간이 天地之道, 人道, 神道를 깨닫고 실행하려는 일체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수도는 인간이 신명과 교류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세상 일을 할 수 없으며 신과 협력해야만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사상이 신인조화(神人調化)이다. 신인조화는 인간이 신의 의지인 神道를 존중할 때 세상은 바르게 인도될 수 있다는 신념체계에서 형성된 사상이다. 즉 신인조화는 천리(天理)와 인사(人事)를 합일시키려는 것이다. 천리는 하늘의 뜻으로 곧 신의 뜻이고, 인사는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말한다. 신인조화는 하늘의 뜻과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모두 성취하게 하려는 사상이며 教理이다. 신과 인간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야 만이 이상적 사회가 건설될 수 있다고 믿는다. 신만 있고 사람이 없거나, 신은 없고 사람만 있으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으므로, 신과 인간이 상통하고 화합하여야만 천도(天道)가 이루어지고, 신의 일과 인간의 일이 모두 성취될 수 있다고 한다.

신은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의탁할 곳이 없고, 사람은 있는데 신이 없으

40) 전경, 재생 43절, p. 309.

41) 拙稿, “陰陽合德의 意義와 思想的 價値”, 大巡思想論叢, 제2집(大巡思想學術院, 1997).

면 인도할 곳이 없게 되니, 신과 인간이 화합하여야 만사가 이루어지고, 신과 인간이 결합하여야 백가지 공사를 이룰 수 있으며, 신명이 사람을 기다리고 사람이 신명을 기다리며, 음양이 상합하고 신과 인간이 상통한 후에야 천도가 이루어지고 도가 완성되며, 신의 일이 이루어져야 인간의 일이 이루어지고, 인간의 일이 이루어져야 신의 일도 이루어진다. 42)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의 영혼은 죽어서 신이 된다고 하는데, 모든 영혼이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전에 도를 닦은 자만이 신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대순사상에서는 수도를 강조하고 있다. 인간이 죽어서 신이 되기 위해서는 도를 닦아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추는 인격을 도야해야만 한다고 한다. 인간은 본래 신과 같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도를 수련하지 않으면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도를 닦은 자는 그 정혼이 굳게 뭉치기에 죽어도 흩어지지 않고 천상에 오르려니와 그렇지 못한 자는 그 정혼이 희미하여 연기와 물거품이 삭듯하리라. 43)

인간이 수도를 하는 것은 인간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신명과의 교류를 위해서 필요하다. 인간이 도를 닦아 성숙한 인격을 갖추고 성실한 생활을 하면, 신명이 도와준다고 한다. 그리하여 대순사상에서는 “트집을 잡고 싸우려는 사람에게 마음을 누그리고 지는 사람이 상등 사람이요 복된 사람이니라. 분에 이기지 못하여 어울려 싸우는 자는 하등 사람이니 신명의 도움을 받지 못하리라. 어찌 잘되기를 바라리오.” 44)

수도는 구도(求道)와는 다른 개념이다. 구도는 도를 얻으려는 행위인데 비해서, 수도는 존재하는 도에 자신을 맞추어 나가는 행동이다. 수도는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고, 신과 같은 수준의 인격을 도야하여 성숙한 인격체가 되기 위한 것이다.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창도주의 가르침이 道이고, 그 가르침을 따르려는 노력이 수도이다. “상제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 언행과 처사가 일치되게 생활화하여 세립미진(細入微塵)되고, 마음이 무욕청정(無慾淸

42) 神無人後無托而所依 人無神前無導而所依 神人和而萬事成 神人合而百工成 神明
 族人人族神明 陰陽相合神人相通然後天道成而之道成 神事成而人事成 人事成而神
 事成 전경, 교운 제2장 42절, p. 207.

43) 전경, 교법 제2장 22절, p. 237.

44) 전경, 교법 제1장 55절, p. 231.

淨)이 되었을 때 도통진경에 이르니라”⁴⁵⁾하여, 수도는 구천상제의 가르침에 충실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3. 修道의 目的과 修道生活

(1) 修道의 目的

대순사상에서 修道를 하는 제일의 목적은 道通을 하려는데 있다. 대순지침에 따르면 “수도의 목적은 도통이니 수도를 바르게 하지 못했을 때에는 도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⁴⁶⁾고 명시하고 있다.

도통에 대해서 대순사상에서는 여러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의 대순진리를 면이수지(勉而修之)하고 성지우성(誠之又誠)하여 도즉아 아즉도(道卽我 我卽道)의 경지를 정각(正覺)하고 일단 활연(豁然) 관통(貫通)하면 삼계(三界)를 투명하고 삼라만상의 곡진이해(曲盡理解)에 무소불능하나니 이것이 영통(靈通)이며 도통인 것이다”⁴⁷⁾라는 것이다.

도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宗旨인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의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철저한 수도를 하고 성실하게 실천해야만 한다. 이러한 수도를 하여 道가 나 자신이며 내가 곧 도라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야(正覺) 한다. 도에서 인간과 만물이 생성되었다는 데에서 도즉아(道卽我)이며, 반대로 내가 곧 도라는 아즉도(我卽道)가 성립하게 된다. 도가 바로 나 자신이며 내가 곧 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도는 인간이 실행해야할 궁극적 가치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도가 인간이라 한 것은 인간이 우주의 중심적 존재라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성실하게 수행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수도를 통해 도통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환하게 통할 수 있으며, 天地人 三界의 구성과 변화의 이치를 완전히 알게 되고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대순사상에서는 도통은 상통천문(上通天文)과 하달지리

45) 대순지침, p. 39.

46) 대순지침, p. 37.

47) 大巡眞理會 教務部, 大巡眞理會要覽(서울 : 大巡眞理會教務部, 1969), p. 9.

(下達地理)하고, 중찰인의(中察人義)⁴⁸⁾ 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上通天文과 下達地理는 天地의 자연적 이치를 완전히 깨닫는 것이고, 中察人義는 天地의 중간적 존재인 인간이 그 존재 의의를 철저히 인지하고, 인간의 도리를 충실하게 행하는 것이다. 도통은 天地之道인 우주 만물의 생성과 변화 법칙을 완전히 깨닫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道인 天道, 地道, 人道, 그리고 神道 등에 완전히 통해서 모르는 것이 없고(無不通知),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無所不能) 경지에 이른 것이다.

둘째, 수도를 하는 목적은 인간이 최고의 인격을 완성하여 완전한 도덕적 생활을 하려는 데 있다. “내 마음을 거울과 같이 닦아서 진실하고 정직한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였을 때 도통에 이른다”⁴⁹⁾ 고 한 것과 같이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것이 수도의 목적이다. 수도를 하는 것은 최고 수준의 人道를 실행하여 儒家나 道家에서 말하는 聖人の 경지에 이르기 위한 것이며, 佛家에서 말하는 해탈의 경지에 오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人道를 완성한 사람은 儒家에서 말하는 眞實無妄하여 어떠한 일을 하는데 항상 최선을 다하며,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참된 일만 한다. 수도를 하는 목적은 眞實無妄한 생활을 하여 仁과 聖의 경지에 이르려는 데 있다. 論語 雍也에서 공자는 “어찌 仁만 행하는가, 반드시 聖에 이르러야 한다(何事於人 必也聖乎)” 라 하여 仁보다는 聖을 강조하고 있다. 聖은 仁을 완전히 실현한 상태로서, 이러한 聖인이 되려는 것이 수도의 목적이다.

셋째, 수도는 인간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초월적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기 위한 데에도 목적이 있다. 이른바 도통을 이루어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을 개발하여 초월적 존재가 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상태의 인간을 대순사상에서는 지상신선, 또는 신선이라고 한다. 인간이 인간적 한계를 초월하여 신과 같은 존재인 신선이 되어 영통(靈通)하려는 데에 수도의 목적이 있다. 신선이란 인간이 초월적인神通력(神通力)을 가지고 불로장생(不老長生)하는 신인(神人)을 말한다.⁵⁰⁾ 신선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상태의 존재가 되는 것으로, 도통한 인간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48) 전경, 교법 제3장 31절, p. 256.

49) 대순지침, p. 38.

50) 田英培, 宗教 · 思想教育(대구 : 보문출판사, 1990), p. 146.

(2) 修道生活

수도생활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공부라고도 한다. 공부란 도주로 숭배하고 있는 조정산(趙鼎山)이 ‘구세제민의 큰 뜻을 가슴에 품고 입산공부에 진력하셨도다’⁵¹⁾ 와, “도주께서 9년의 공부 끝인 정사년에 상제의 삼계대순(三界大巡)의 진리를 감오하시도다.”⁵²⁾ 그리고 공부실⁵³⁾ 이란 표현을 쓰기도 하였고, 공부를 통해 득도하였다고 한다. 조정산은 스스로의 공부를 통해 득도(得道)를 한 후에 무극대운(無極大運)의 해원상생(解冤相生)의 진리를 설법하였다. 따라서 공부란 수도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대순진리회에서는 신앙의 3대원칙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고 한다. 신앙의 3대원칙은 포덕(布德), 교화(教化), 수행(修行)을 말한다.⁵⁴⁾ 첫째, 포덕은 덕을 편다는 뜻으로, 대순진리회를 신앙하는 도인들이 비도인(非道人)들에게 도의 의의와 수도생활의 필요성을 알려 주는 것을 말한다. 포덕은 대순사상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선경세계(후천세계)에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布德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포덕은 인도를 선도하여 윤리도덕의 상도(常道)를 바로 이룩하는 것이다.⁵⁵⁾

포덕은 덕을 편다는 말이니 겸허와 지혜의 덕으로 사(私)로 인하여 공(公)을 해치지 말고 보은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⁵⁶⁾

해원상생 대도의 참뜻을 전하는 것이 포덕이며, 포덕천하(布德天下)가 되어야 광제창생이 되는 것이다.⁵⁷⁾

포덕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포교(布教)와 같은 의미이다. 포교란 자신들의 종교를 믿는 교인들을 증가시켜 교세를 확장시키려는 활동이다. 대순진리회에서 말하는 포덕은 道人들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人道를 실행하여 올

51) 전경, 교운 제2장, p. 191.

52) 전경, 교운 제2장 6절, p. 191.

53) 전경, 교운 제2장 8절, p. 192.

54) 대순지침, pp. 44-45.

55) 대순지침, p. 19.

56) 대순지침, p. 19.

57) 대순지침, p. 19.

바른 사회를 건설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포덕은 해원상생(解冤相生)의 참 뜻을 전하는 것으로, 인류 전체가 도인이 되는 세상을 이루려는 것이다. 인류 전체가 도인이 되는 것을 포덕천하(布德天下)라 하는데, 이는 모든 인류를 구하려는(廣濟蒼生) 것이다.

둘째, 교화는 대순진리회의 기본 교리를 널리 이해시키는 것을 말한다. 교화는 도인들을 대상으로 대순한 진리를 보다 깊이 이해시켜 신앙심과 道心을 쌓게 해주는 활동을 말한다.

셋째, 수행은 수도생활의 핵심이다. 수행이란 마음으로 닦고 몸으로 행하여 심신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수행은 바른 인도를 실행하는 것이다. 인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참된 마음과 행동을 해야 한다. “마음이 참되지 못하면 뜻이 참답지 못하고 뜻이 참되지 못하면 행동이 참답지 못하고, 행동이 참되지 못하면 도통진경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心不誠 意不誠 意不誠 身不誠 身不誠 道不誠).”⁵⁸⁾ 하였다. 이러한 수행에는 신명이 나를 항상 관찰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행하여야 한다. “도인들은 항상 어디서나 신명의 수찰이 있음을 명심하고 속임과 거짓이 없이 도인의 본분을 바로 지켜야 한다.”⁵⁹⁾고 하여 인간은 신명과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수행할 것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과오를 경계하기 위하여 옛부터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것(自欺自棄)이요, 마음을 속이는 것은 신을 속임이다(心欺神棄)’고 하였으니 신을 속이는 것은 곧 하늘을 속임이 되는 것이니 어느 곳에 용납되겠는가 깊이 생각하라.”⁶⁰⁾하고 있다.

수도생활은 성실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성현으로 추존 받은 옛 사람은 성(誠)을 일생동안 값진 보배로 삼아 지성으로 진리를 수행한 분들이다.”⁶¹⁾ 라고 하여 지극한 성으로 수도하면 성현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지극한 성으로 수행을 하는 것은 훈회와 수칙을 생활화하는 것이다.⁶²⁾ “마음을 속이지 않는 데서 서로가 신뢰할 것이고, 언덕을 잘 가지므로 화목할 것이며, 척을 짓지 않는데서 시비가 끊어질 것이고, 은혜를 저버리지 않

58) 대순지침, p. 76.

59) 대순지침, p. 39.

60) 대순지침, p. 42.

61) 대순지침, p. 41.

62) 대순지침, pp. 43-44.

는 데서 배은망덕이 없을 것이며, 남을 잘 되게 하는 공부니 이것이 우리 도의 인존사상이며 바로 평화사상인 것이다.”라 하고 있다. 誠을 실행하는 생활은 훈회와 수칙을 생활화하는 것이며, 이는 곧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며, 인류의 평화를 위한 사상이라는 것이다.

IV. 結論

이상으로 경천과 수도에 관해 고찰해 보았다.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사회와 자연현상은 天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믿는 주재천(主宰天)으로 보고 있다. 대순사상의 天觀은 인간을 포함한 만물은 天의 지배를 받는다고 믿고 있는데, 創造主인 강증산을 주재천으로 숭배하고 있다. 그리고 종통을 계승한 조정산(趙鼎山)과 박우당의 가르침을 실행해야 한다고 믿고 있어, 강증산을 구천상제라 하고 조정산을 옥황상제라 한다. 이러한 천관과 종통에 따라 도의 근원은 하늘에 있으며, 구천상제가 주관한다고 믿는다. 구천상제가 주재하는 인간이, 그 가르침을 깨닫고 실행하는 것이 경천의 핵심이다.

어떠한 종교이든지 인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상을 실현하려고 한다. 본질적으로 유한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 신성한 힘이나 초월적 영역에 의존하려는 것이 신앙인데, 대순진리회에서는 강증산을 숭배하고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신앙을 도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수도라 한다.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도는 우주의 영원한 진리이며, 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법칙 등이라 한다. 그리고 도는 天地인 음양에 의해 나타나는 자연현상과 인간 생활의 이치, 인간이 지켜야 할 경위나 법 등을 총칭한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음양에 의해 생성되고 변화하는데, 여기에는 오묘한 이치와 경위, 법 등이 있는데 이를 도라 한다. 인간도 우주에 의해 생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도 음양의 이치에 의해 성립된 경위와 법 등을 준수하는 생활을 해야만 한다.

우주는 음양의 조화에 의해 구성되는데, 모든 구성 요소에는 각각의 법칙과 이치가 있으므로, 하늘에는 천도(天道), 땅에는 지도(地道), 사람에게에는 인

도(人道)가 있으며, 신명세계에는 신도(神道)가 있다고 한다. 天道는 우주의 순환 원리와 법칙이고, 地道는 지상에 존재하는 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이치를 말한다. 天道와 地道는 천지지도(天地之道)라 하는데, 인간계와 자연계를 관통하는 영원불변의 진리, 자연의 법칙, 필연(必然)의 理法 등을 의미한다. 천도와 지도는 모든 진리의 근원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행위의 궁극적 준칙으로 보고 있다. 地道란 天道와 음양관계에 이는 지상의 도로서, 하늘과 땅이 상호 협력하여 만물을 생성하고 변화시키는 원리이며 기본적 사상이다.

인도는 인간으로서 실천해야 할 기본적인 도리를 뜻한다. 대순사상에서 인도는 誠을 실천하는 태도로서 진실한 마음을 갖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신도(神道)는 인간과 신이 상호 직접적인 감응관계(感應關係)가 있다는 특수한 도의 개념으로, 인간이 신의 뜻을 존중하여야 신이 인간을 도와 준다는 사상이다. 신과 인간이 상호 존중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가져야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사상이다.

수도는 인간이 天地之道, 人道, 神道를 깨닫고 실행하려는 일체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인간이 신명과 교류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 위한 神道를 이루어 천리(天理)와 인사(人事)를 합일시키려는데 수도는 필요하다. 즉 수도는 하늘의 뜻인 신의 뜻과 인간사회의 모든 일을 조화롭게 실현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수도는 인간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신명과의 교류를 위해서 필요하다.

修道를 하는 목적은 道通을 하려는데 있다. 도통은 대순진리회의 宗旨인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의 진리를 깨달아, 천지인(天地人) 三界의 구성과 변화의 이치를 완전히 알게 되고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 있게 된다. 도통은 天道, 地道, 人道, 그리고 神道 등에 완전히 통해서 모르는 것이 없고(無不通知),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無所不能) 경지에 이른다.

대순진리회에서 도통을 하는 수도는 신앙의 3대원칙에 따라야 한다. 신앙의 3대원칙은 포덕(布德), 교화(教化), 수행(修行)이다. 포덕은 덕을 편다는 뜻으로, 대순진리회를 신앙하는 도인들이 비도인(非道人)들에게 도의 의의와

수도생활의 필요성을 알려 주는 것이다. 교화는 대순진리회의 도인들을 대상으로 대순한 진리를 보다 깊이 이해시켜 신앙심과 道心을 쌓게 해주는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수행은 수도생활의 핵심으로서, 마음으로 닦고 몸으로 행하여 심신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수행은 창도주인 강증산, 조정산, 박우당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성실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천은 天을 神과 같은 신성한 절대적 존재로 존중하여 신앙생활의 근본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수도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 경천과 수도는 인간이 참된 마음을 갖고 참다운 행동을 하게 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大巡眞理會要覽(서울 : 大巡眞理會教務部, 1969).
- 대순지침.
- 典經.
- 金敬琢 譯解, 新譯 老子(서울 : 玄岩社, 1985).
- 金勝東, 道教思想辭典(부산 :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6).
- 拙稿, “陰陽合德의 意義와 思想的 價値,” 大巡思想論叢, 제2집 (大巡思想學術院, 1997).
- 拙稿, “神人調化의 思想的 意義,” 大巡思想論叢, 제3집 (大巡思想學術院, 1997).
- 拙稿, “政策研究의 解冤相生的 接近,” 大巡思想論叢, 제4집 (大巡思想學術院, 1998).
- 拙稿, “道通眞境의 宗教的 意義”, 大巡思想論叢, 제6집(大巡思想學術院, 1998).
- 徐相潤 譯解, 周易 (서울 : 韓國協同出版社, 1983).
- 柳東植, “韓國의 民俗·宗教思想 概說”, 李丙燾 의 譯, 韓國의 民俗·宗教思想(서울 : 三省出版社, 1981)
- 柳正基, 東洋思想辭典(大田 : 右文堂出版社, 1965).
- 尹以欽, 韓國宗教研究(서울 : 集文堂, 1986).
- 李基東, “孟子의 義思想에 대하여”, 道源柳承國博士華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東方思想論巧 : 그 本質과 現代的 解釋(서울 : 종로서적출판주식회사, 1983).
- 李相珣, “孔孟之道의 現代社會思想的 意味”, 道原 柳承國博士華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東方思想論巧 : 그 本質과 現代的 解釋(서울 : 종로서적출판주식회사, 1983).
- 李完基, “孟子의 義思想에 대하여”, 道源柳承國博士華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東洋思想論巧 : 그 本質과 現代的 解釋(서울 : 종로서적출판주식회사, 1983).

李完裁, “儒學의 精神,” 道源柳承國博士華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東洋思想論巧 : 그 本質과 現代的 解釋(서울 : 종로서적출판주식회사, 1983).

이은봉, 종교세계에의 초대(서울 : 지학사, 1985).

張立文, 道(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89), 權瑚 譯, 道(서울 : 東文選, 1995).

田英培, 宗教·思想教育(대구 : 보문출판사, 1990).

한국종교연구회, 한국종교문화사 강의(서울 : 청년사, 199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23(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6(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